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2월 2일
제2038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생명 수호 행진 March for Life (2025년 1월 24일)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다해)

제 1 독서 말라 3,1-4 |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화답송 시편 24(23)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다.

제 2 독서 히브 2,14-18 |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또는 루카 2,22-32> |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현을 마무리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시어, 복음 권고의 서원으로 주님께 축성받아 자신을 봉헌한 축성 생활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축성 생활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복음 묵상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아기를 주님께 바친 일을 기념합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히브 2,17) 하였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백성의 다른 말아들처럼 부모의 손으로 성전에 바쳐지십니다. 아기 스스로 자신을 바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칩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 원문은 ‘봉헌’과는 조금 다른 ‘나타내 보이다, 출현하다, 소개하다’(present)라는 뜻을 가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오늘 복음을, 드디어 오신 구세주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두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 백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일종의 상견례인 셈이지요. 제1독서에서 구세주께서 “자기 성전으로 오[시]리라.”(3,1)라고 한 말라키 예언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곧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 처음으로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축성 생활’(vita consecrata)의 날을 꽤 오랫동안 ‘봉헌 생활’의 날로 불러왔기에 축성 생활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신 것과 같은 의미로 봉헌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이를 ‘축성 생활’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 주교회의의 결정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축성 생활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축성’은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봉헌’과는 쓰인 낱말과 그 뜻이 다릅니다. ‘축성 생활’은 “서원을 통하여 … 세 가지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삶, 곧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교회 헌장, 44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도자를 포함하여 복음 권고를 서약하는 모든 이가 축성 생활자입니다. 올해 ‘한국 교회 축성 생활의 해’를 지내면서 축성 생활 성소를 위하여 더 기도합시다.

(국춘심방그라시아 수녀)



Statement of Bishop Michael F. Burbidge on Air Collision Over the Potomac River



저는 알링턴 교구의 신자들과 워싱턴 지역 모든 이웃들과 함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의
비극적인 충돌 사고(1월 29일)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민간인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훈련받던 군인들을 포함하여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생명을 잃은 충격에 싸여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신자 두 명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잃고 비통에 빠진 이들과
이 슬픔을 함께 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포토맥 강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과 바람 속에서 생존자와 희생자를 수색한
주변 관할 구역의 모든 응급 구조대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어여삐 여기시고
언제나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깊은 슬픔의 시간에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January 30, 2025

Michael F. Burbidge

Bishop Michael F. Burbidge



1월 30일(목) 성 토마스 모어 대성당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3fGZsrCtDM>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떠난 000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당신 곁으로 돌아간 000를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주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하여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고
언젠가 당신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녀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

위로자이신 하느님,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슬픔 속에서도 위안이 있고
절망 앞에서도 희망이 있으며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중에 있는 000와 000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가정이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탁하여
지금의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또한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희망을 간직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에는 LA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LA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헌금에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2월 9일) 미사 중에는 교구 신문(Diocesan Newspaper)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알링턴 교구의 신문은 우리 교구, 미국 주교 및 바티칸에 대한 가톨릭 뉴스와 정보를 10만여 가정에 전달하고 있으며 catholicerald.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LA 산불 피해 후원 안내

- LA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후원하실 분들에게서는 수표 사용자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을 수취인으로 하고, 메모란에 "L.A. Wildfire Relief"를 써서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소 :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P.O. Box 1960 Merrifield, VA 22116
- 문의 : 교구 재정 담당 사무실 (703) 841-2577

3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식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0시 미사, 오후 2시 미사
-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1년 동안 미사 때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오전 10시 미사와 오후 2시 미사 때 초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1:30 (B-3,4)

5 K of C 월례 회의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9:15 (B-3)

6 바오로회 총회

- 일시 : 2월 2일(일) 오후 6시 (친교실)

7 첫 금요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 일시 : 2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 및 성체 강복
- 7시부터 떼제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떼제 성가를 배우실 분들은 연습 시간에 맞추어 오시기 바랍니다.

8 단체장 회의

- 일시 : 2월 9일(일) 오전 11:30 (A-1,2)

9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2월 9일(일) 오전 11:30 (B-3,4)

10 봉성체

- 일시 : 2월 14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 2월 봉성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주 늦추어 실시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월 봉성체도 한 주 늦추어 하겠습니다.

11 유아세례

- 일시 : 2월 15일(토) 오후 2시 (사무실로 신청)

12 2024년 견진반 신청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7학년 이상
- 일정 : 3월 12일(수) 오후 7시
- 등록 기간 : 3월 2일(일)까지 (오후 2시 미사 후 교무실)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3 세계 결혼 주간 안내

- 결혼 주간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 14일(금)
- 주제 : 결혼-희망의 원천, 새신의 봄 (변치 않을 사랑을 추구하라!)
- 알링턴 교구에서는 세계 결혼 주간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성사성을 잘 유지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의 St. Ambrose 에서 부부를 위한 워크숍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결혼의 날을 맞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대화와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14 부제·사제 서품 준비 위원회

- 부제, 사제 서품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님을 먼저 임명합니다. 위원장님은 황원균 알렉산더 전 사목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부제 사제 준비 위원회를 꾸려 추후 임원들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3년간 계속 있을 부제, 사제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고국 성지 순례 준비 시작합니다

- 고국 성지 순례 준비를 위한 위원장으로 강세원 바오로 전 사목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성지 순례를 준비하며 첫 모임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전 모모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된 금액은 원주 카리타스 후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총 모금액 : \$ 6,640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축성생활의 날)

축성생활의 날 - 기도해 주세요

축성생활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명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자신을 봉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선택한 이들이 축성생활자입니다. 축성생활자의 범주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도자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직자와 동정녀, 은수자, 봉헌자, 재속 회원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첫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교중미사 예불봉헌

02/02 이번 주 라우던 2구역

02/09 다음 주 버크 3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월 26일 (연중 제3주일)

봉헌금	\$ 7,656.00
교무금	\$ 13,470.00
교무금(신용카드)	\$ 1,510.00
감사 헌금	\$ 1,100.00
2차 헌금	\$ 3,729.00
온라인 봉헌	\$ 1,715.00
합계	\$ 29,18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5년 2월 6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2월 7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2월 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다큐멘터리: "초원의 바람" 영원한 몽골 선교사 고 김성현 신부 마지막 강의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